

【 해외금융 뉴스: 중국 】

올해 중국 무역규모, 사상 최고치 전망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중국 무역액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2조 9천억 달러를 달성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상무부의 중산(鍾山) 부부장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의 총 무역액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정부의 내수시장 확대정책 효과로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인 2조 9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 올해 초 늘어나는 수입액에 비해 수출액이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하반기에도 수출 원가 상승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에 따른 무역경쟁 격화 등으로 무역환경 악화가 예상되었음.
- 그러나 최근 11월 무역액이 전년동월대비 수출과 수입이 각각 34.9%, 37.7% 급증하는 등 세계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할 것으로 보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교역국가가 될 전망이다.

□ 중국의 무역규모 확대가 정부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대외무역정책 결과라는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 문제 등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출전략 변화 및 무역수지 개선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무역규모 확대에 대해 중산 부부장은 정부가 시장확대 및 구조조정 균형 촉진이란 원칙 하에 안정적으로 대외무역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함.
- 그러나 그는 무역액 증가 이면에는 위안화 환율, 신에너지 정책, 지적 재산권 보호, 투자환경 개선, 희토류 수출 등의 많은 난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출전략을 양적 수출에서 질적인 수출로, 저가 제품에서 고급제품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상무부는 최근 개최한 전국상무공작회의에서 2011년 상무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무역 목표를 수출성장 촉진과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의 균형 도모로 설정하는 동시에 외환 보유액 사용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중국증권보, 중국상무부 홈페이지, 12/22)